

수술 치료만으로는 술 후 환자와 술자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교정의는 외과의와 함께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의 전체적인 안모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악교정 수술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증례는 scissor bite를 주소로 내원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악교정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환자의 심미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술 치료 계획을 수정하여 부가적인 성형외과적 시술을 동반한 것으로 술 후 환자와 술자 모두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T-09 테이블 클리닉

Combination surgery of IVRO and SSRO in asymmetric patient (IVRO와 SSRO의 복합 수술을 통한 비대칭 환자의 치협례)

오은주, 전영미, 김정기 | 전북대 교정과

일반적으로 하악전돌을 동반한 심한 안면비대칭 환자의 치료시, 악교정 수술이 불가피하며, 하악골의 좌우 후퇴량을 다르게 한 골절단을 통해 큰 비대칭을 수정하고 잔여 부분은 삭제나 증대술을 통하여 개선하는 것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좌우 동일 방법의 골절단술을 시행한 경우, 하악지의 경사 차이가 심한 안면비대칭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남은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한 삭제와 증대술에도 심한 경우 그 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방법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수술시 외과의들은 과두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입증하듯이, 하악 형태와 수술접근성 때문에 평행한 골절단이 어려우므로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는 쪼개기형의 틈이 근원심 골편 사이에 형성되어 근심 골편이 보다 내측으로,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는 피질골이 겹치면서 밀리므로 외측으로 변위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좌우 하악지의 경사도가 상당히 다른 환자에서 이러한 과두변위를 이용하여 경사가 급한 측에서는 하악지를 외측으로 회전시키는 IVRO를, 경사가 완만한 측에서는 하악지를 내측으로 회전시키는 SSRO를 행하여 하악지 부위의 비대칭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보기로 하였다. 본 증례는 하악전돌을 동반한 비대칭 환자에서 좌우 비대칭적 수술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악안면 비대칭의 개선에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T-10 테이블 클리닉

Treatment of bimaxillary protrusion cases in Level Anchorage System

이효연*, 송명구**, 도승희***, 오성진****

미소안치과의원*, 서울치과의원**, 도앤도치과의원***, 서울백병원 치과****

Level Anchorage System (LAS)은 anchorage의 양을 정량화하여 증례를 분석하는 독특한 분석방법을 가지고 있다. 본 분석법에서는 도달하고자 하는 치료목표와 환자의 상태간의 차이를 anchorage unit이라는 정량적인 단위로 산출을 해내고 있다. 즉 공극획득, 수직교경의 조절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들을 동등한 차원의 anchorage unit으로 다룸으로써,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파악해 내고 있는 것이다. 상하악 소구치의 발치에 의해 총생 또는 상하악 전돌 증례를 치료하는 경우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I급 및 II급 부정교합의 증례에서 현저한 안모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LAS를 교정치료에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anchorage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필요한 anchorage를 치료의 과정 중에 최대한 확보하여 유효 적절하게 치료단계마다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심한 안모 돌출의 증례라 해도 항상 안정적으로 좋은 안모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돌출된 안모의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anchorage의 확보와 vertical control, 그리고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진행하는 치료 솔식이 중요하다. 제출된 증례들은 공통적으로 안모돌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하순의 돌출, 턱 부위의 긴장, 후퇴된 하악골을 보이고 있는 증례들로서, 상하악간의 전후방적인 골격의 부조화와 치열의 부조화를 동반하고 있는